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6 (온세상아 주님을)	210 (나의 생명 드리니)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제 1독서 | 이사야서 62,1-5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화답송 |

-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좌)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우)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좌) 주님께 드러라, 못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우)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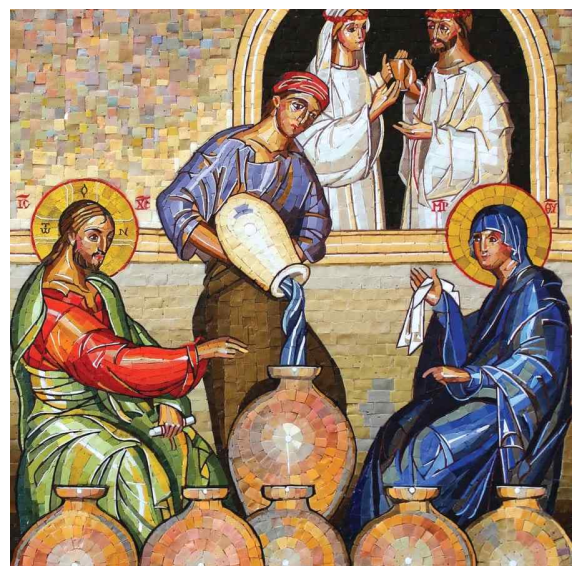
제 2독서 | 1코린 12,4-11

<하느님께서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1-11



가톨릭 교리 - 미사 때 사제는 왜 포도주에 물을 섞나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표징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는 이 표징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때’를 이미 예고하고 있으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하느님 나라 혼인 잔치의 실현을 나타낸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35항)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물과 포도주는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 신비의 중요한 상징으로 지금까지 거행되고 있습니다. 성찬 전례의 예물 준비 기도에서 사제는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따르면서’, 속으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좀 더 라틴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과 포도주의 신비로운 표징으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에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 본성에 기꺼이 참여하셨나이다.”

이 경문을 더 이해하기 위하여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의 한 단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퀴나스는 그의 주저 《신학대전》 III부 74문에서 성체성사의 재료들에 관하여 논하며, 제6항에서 포도주에 물을 섞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9.5)고 하였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목요일에 사도들과 마지

막 파스카 축제 만찬을 나누시며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포도주 잔에 물을 섞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전합니다.

셋째로, 물은 그리스도교 백성을,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작 안에서 물이 포도주와 섞이는 것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뜻합니다.

넷째로, 성체성사의 궁극적인 효과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출기 17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위를 건드리자 물이 터져나와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성작 속으로 떨어진 물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샘솟는다.”는 암브로시오 교부의 말씀을 인용하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제가 성작에 물을 넣는 것을 사막에서 모세가 바위를 건드리며 물을 터뜨린 탈출기의 장면과 연관시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행하는 전례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풍부한 상징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에 그리스도의 공생활을 따라가며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신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교의 형성 과정)

지난 달부터 청년들의 성서모임 연수 준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함께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어쩔 이렇게 손발이 잘 맞을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할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그 많은 일을 해 내면서도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삶을 나누는 데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느님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매번 감동했습니다.

교의(dogma) 신학을 연구하고 글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신앙에 대한 교의와 신학자들의 저서를 연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말이지요. (교의는 종교에서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교리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교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교의는 위에서 아래로 선포되는 것이며 신자들은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신앙의 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초대 교회 교부들의 삶을 바라보면 교의를 선포한 최초의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의가 먼저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간 올바른 삶은 그 자체로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역 사회 안에서도 그들의 모범적인 삶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보편적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출발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에서 ‘듣는 교회’(ecclesia audiens)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부터 믿음의 내용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성서모임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보며 오랜 기간 형성된 전통과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따르는 방식을 선택해 살다 보니 교회의 규정과 법도를 알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나누며 서로에게 귀감을 주는 행위를 통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하던 방식’(lex vivendi)이 그들의 ‘믿는 방식’(lex credendi)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살아 있는 교회의 전승은 삶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때 그 빛을 발휘하며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오늘날의 교의신학은 변화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Fr.전인걸 요한보스코

성 비오 신부님께서 “영성체 후 바치신 기도문” 중 일부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당신을 잊지 않도록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얼마나 쉽게 당신을 잊어버리는지 아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저는 약하니 제가 자주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힘이 필요하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당신은 저의 생명이니 당신 없이는 힘이 없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당신은 저의 빛이니 당신 없이는 제가 어둠 속에 있나이다.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소서.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와 함께 머무르소서. 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하고 싶고, 언제나 당신의 친구이고자 합니다.

공지 사항

1. 설 명절 주일미사 - '위령들을 위한 지향'

다음주 주일 (1월 26일)에는 '조상님,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은인 등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지향을 두고 주일미사가 봉헌됩니다.

* 미사 전 30분전부터 연도(짧은 연도)와 제대 앞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와 연도 때의 지향 신청 안내

지향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전 입구에 있는 미사예물 봉투를 사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이름과 세례명, 기억하고 싶은 연령의 이름(세례명)을 기재 후, 교무금함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봉헌된 예물은 예비신자와 신자분들의 교리 및 기타 영성모임을 위해 쓰입니다.

2. 설날 맞이 식사 나눔

다음주 주일미사 후에는 작년과 미사 후 식사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사목회에서는 '밥, 김치, 고기, 음료'를 준비합니다. 각 가정에서 나누고 싶으신 '음식 혹은 디저트' 등을 한 접시씩 준비해오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유아세례식 - 김제나(제나)

다음주 주일미사 중에는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김제나(제나)와 부모님이신 김민준(토마스 아퀴나스), 김한나(한나) 형제자매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비자 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월 9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5. 여정 '시즌 3' 영적독서 모임 신청

- '영적독서 모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목주기도 후)
- 기간: 2월 25일(화)부터 ~ 4월 중순까지
-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2월 2일(주일)까지입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월 5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50명
1월 12일	유아·청소년: 13명	성인: 49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월 19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1월 26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월 19일)	마태오반
다음주 (1월 26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1월 11일 ~ 1월 17일)

봉 헌 금	\$ 359			
교 무 금	\$ 580			
구민식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한상지				

| 기도 지향 |

- * 복사단 아이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 * 서원석 미카엘 형제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